

# 부자들, 평균 자산 120.7억...노후자금에 44% 사용한다

## 【富보고서①】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0억이상 금융자산가 808명 설문조사

65세 은퇴 기점 100세까지 노후자금 44억5000만원

“자녀에 상속·증여 계획” 42.4%...노후준비 철저해

국내 부자들은 평균 120억66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31일 국내 부자들의 자산관리 행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 '2018년 코리아 웰스 리포트(Korean Wealth Report)'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KEB하나은행 PB고객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의 총자산 규모는 평균 120억6600만원에 달했

다. 이들은 자산의 44.1%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부자의 월평균 지출 규모가 105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65세의 은퇴를 기점으로 100세까지 필요한 노후자금은 44억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44%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노후설계”라고 설명했다.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계획이라는 자산 비중은 전체의 42.4%로 노후 자금으로 쓰일 비중보다는 낮았다. 응답자의 58.9%는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상속하지 않고 전 재산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응답자도 10%에 달했다. 늘어난 수명만큼 현재의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 준비에 더욱 철저히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총자산의 13.5%는 기부 등 기타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조사됐다. 부자들은 노후 준비를 위한 개



인연금 활용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의 76.7%는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연금 수령이 개시된 부

자들의 66.9%는 받은 연금을 다른 금융상품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스

## ‘강남3구’ 부자들, 월평균 1140만원 쓴다

## 【富보고서②】

“40대 이하 지출 줄이고 60·70대 지출 규모 늘려”

국내 부자들은 월평균 1059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는 부자들의 지출규모는 1140만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31일 국내 부자들의 자산관리 행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 '2018년 코리아 웰스 리포트(Korean Wealth Report)'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KEB하나은행 PB고객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의 월평균 가계지출 규모는 105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조사한 일반 가계의 월평균 지출액 336만원보다 약 3.2배 많은 수준이다. 일반 가계

의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1.7% 감소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 부자들의 월평균 지출 규모가 1141만원으로 1년 전(1056만원)보다도 8% 증가했다. 지방 부자들의 씀씀이도 월평균 1084만원으로 강남 이외의 서울 지역(975만원)에 시는 부자들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월평균 1174



만원 지출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1080만원), 50대(1008만원), 40

대(868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40대 이하의 젊은 부자는 지출을 줄이는 반면 60대와 70대 부자들이 지출 규모를 더 늘리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부자들 사이에서도 젊게 사는 60대를 칭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증가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결과 여가활동과 사교 모임 참여에 적극적인 50대 보다 소비 지출이 높게 나타

## 부자 60% “향후 2~3년 안에 부동산 안판다”

## 【富보고서③】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KEB하나은행 PB고객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지는 58.8%에 달했다. 실제 부자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자산은 50.8%로 금융자산(43.8%)보다 더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5.6%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최소 한 채

오히려 거주용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투자 의향은 13.5%로 1년 전(9.0%)보다 증가했다. 투자 목적도 같은 기간 12.0%에서 16.0%로 늘어났다. 반면 건물이나 상가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47.8%로 지난해 조사 때(57%)보다 약 9%p 줄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직접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갖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선호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의 약 60%가 향후 2~3년 내에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할 뜻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31일 국내 부자들의 자산관리 행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 '2018년 코리아 웰스 리포트(Korean Wealth Report)'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부동산 규제책 불구 부동산 자산 선호도 지속  
부자들 자산 구성, 부동산 50.3% > 금융자산 4.6%

을 옥죄고 다주택자의 세제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주택을 매각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7%에 불과했다. 향후 2~3년 내에 보유 중인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할 뜻이 없다는 응답

이상 보유했다

지역광고·이벤트·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